

## 통합특별시장 'ARS 여론조사' 신뢰도 의문

### 6·3 지방선거 D-90

낮은 응답률에 '여론 왜곡' 우려 확산  
전남 응답자 수 광주 대비 1.6-1.8배 ↑  
도시보다 농어촌 응답자 많아 이례적  
특정 후보만 전남에서 선호도 급상승  
전문가 "인구 비례에 맞지 않은 결과  
통계학적으로 주의 필요한 사안" 지적

6·3 지방선거에서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이 현실화한 가운데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가 자칫 지역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표본 수가 적고 응답률마저 극도로 낮아 혹시 모를 외부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 전남지역 응답자 수가 도시인 광주보다 최대 1.8배나 많게 집계된 데다, 특정 후보에 대한 전남지역 선호도만 급상승해 ARS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1월 초부터 실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단체장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 6건 가운데 5건이 ARS 방식을 적용했다. 나머지 1건만 전화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5건의 ARS 여론조사 응답률은 5.7%, 7.1%, 6.4%, 6.6%, 7.2%에 머물렀다. 반면, 전화심층면접 여론조사 응답률은 14.1%를 기록했다.



오늘 경칩...봄꽃 심기 분주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 난다는 경칩을 하루 앞두고 낮 최고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4일 오후 광주시 회계과 직원들이 시정 앞 화단에 팬지, 비올라 등 봄꽃을 심고 있다. /조영권 기자

ARS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낮고 조사 기간이 2일로 짧아 단기간에 2만-3만명에게 전화를 걸어 간신히 수치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항이 길어 이해가 어렵고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대부분 조사 대상자들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 연령, 성별 등으로 할당된 비율까지 맞춰야 하는 만큼 결국 조사 기간 내에 이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가중치를 적용해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의 두

차례 조사에서 광주와 전남의 응답자 수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실제 지난 2월 두 차례 여론조사의 응답자는 각각 1천510명(광주 533명, 전남 977명), 1천23명(391명, 632명)으로 공개(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됐다. 광주보다 전남의 응답자 수가 각각 1.83배, 1.62배 많은 수치다.

통상 여론조사의 경우 도시지역 응답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극히 이례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지난 1월부터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3건의 ARS 조사에선 전남 응답자 수가 광주에 비해 1.2배, 1.3배, 1.4배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나머지 1건의 전화심층면접 조사의 응답자 수는 광주 802명, 전남 807명으로 비슷했다.

게다가 2월 두 차례 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이 모두 오차범위 내 등락 변화를 보인 반면, 특정 후보만 전남 선호도가 직전 조사에 비해 6-10% 이상 급등한 것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재정 기자

## 김영록 지사, 내주초 특별시장 선거 '등판'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른 오전 9-10일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4일 김영록 지사 측에 따르면 김 지사의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오는 9-10일께로 앞당겨졌다.

당초 김 지사는 오는 13일까지 열릴 예정인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을 마무리한 뒤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다, 더불어

일정 당겨 9-10일 예비후보 등록 민주당의 전남 선거사무소는 광주 상무지구 유력 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방식 등이 구체화되는 등 정치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일정을 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에서 각각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뒤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사무소는 광주에 설치하기로 했다. 상무지구 또는 광주신세계백화점 인근 사무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상무지구가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이번 주 중 국무회의가 열려 통합특별법을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는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선거 준비를 하는 것으로 가늠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 'AGAIN 2009' 韓, 도쿄돔 출격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막을 올린다. ▶관련기사 16면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의 1차 목표는 8강 진출이다. 한국은 WBC가 창설된 2006년 3위, 2회 대회인 2009년 준우승을 했다. 하지만 이후 2013년, 2017년, 2023년에는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다. 17년 만에 8강에 도전하는 한국은 일본, 대만, 호

주, 체코와 C조에 편성됐다.

한국대표팀은 5일 오후 7시 도쿄돔에서 체코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7일 일본, 8일 대만, 9일 호주와 조별리그(라운드)를 치른다. 디펜딩챔피언 일본과의 맞대결을 부, 8강 경쟁자로 꼽히는 대만전 결과가 한국의 토너먼트 진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올해 WBC 본선에는 20개국 이상이 출전, 4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후 각 조 1-2위가 8강(라운드)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최약체로 평가 받는 체코와의 경기 선

발에는 소형준(kt)이 낙점됐다.

일찌감치 일본 오키나와에서 WBC를 대비한 한국대표팀은 KBO리그 구단과 5차례 연습경기에서 뜨거운 타격감을 확인했고, WBC 사무국이 마련한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와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두 차례 공식 평가전에서 막강 화력을 뽐내며 1차 전 최강한 공격야구를 예고했다.

무엇보다 2024년 최고의 시즌을 빛낸 김도영(KIA)의 부활이 반갑다. 지난달 26일 삼성과의 연습경기에서 첫 홈런을 터

## WBC 오늘 개막...체코와 첫 판 일본·대만전이 8강 진출 분수령

뜨리며 화려한 부활을 알린 김도영은 한신 타이거즈전에 이어 오릭스 버펄로스 전까지 3경기 연속 대표를 쏘아올리며 도쿄돔을 정조준했다.

마운드에서는 오릭스와의 평가전에 선발 등판해 3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데닝 더닝(시애틀 매리너스)과 베테랑 류현진의 활약이 예상된다.

'빅 리거'인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김혜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선전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희준 기자

### 변호사 영입인사

저희 법무법인 이우스는 이번에 김봉준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새로 영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무법인 이우스는 상생과 공익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법조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3.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김정호, 전일호  
고문 오세욱  
변호사 강성두, 이병주, 장은백, 김아름, 서영옥, 이인애, 김주완

###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정장, 부장검사,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서 쌓아온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 석석고등학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90학번)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2001년), 사법연수원 33기
- 진주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부장검사
- 광주지검, 목포지검, 부산지검, 제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검사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

**대표변호사 김봉준 올림**

- 업무개시 : 2026. 3. 9(월)
- 개업소연 : 2026. 3. 26(목)

- 개업장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9 이우스빌딩
- 대표전화 : 062) 233-1600 팩스 062) 225-7800

## 제13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요강

###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모집인원** 00명 내외

**교육기간** 2026년 3월 24일(화) ~ 2026년 12월 종강(연 16회)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오후 7시 ~ 8시 30분(6시부터 식사)

**강의장소** L7 층장 바이 롯데호텔(구,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전형방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영합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접수마감일 : 2026년 3월 20일(금)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4)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 주요강사진(2026년)

박지훈  
변호사

조영구  
방송인

김동규  
성악가

이봉주  
전 마라톤 선수

정윤호  
미술사

김봉준  
전남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김영미  
노스페이스 예술리틀팀

헤인 스님  
마음치유학교 교장

김대식  
카이스트 뇌과학자

김지연  
배우